색으로만 쫓아다니다 보면 부처님의 뜻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 17면에서 계속

그럼 똑같은 손오공이 쭉 만 개가 나갔다고 합시다. 근데 똑같은 손오공이 만 개가 나갔는데 여러분한테 보여 주려니까 똑같은 손오공이 보인 거지, 그건 보이지 않는 데서 바로 불바퀴가 용을 하는 그런 도법입니다.

그러면 그런대로 그렇게 만 개가 나갔으면 용도에 따라서 하나하나가, 부처님께서는 다닐 때 둘씩도 다니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너무도 건질 게 많으니 하나하나 용도에 따라서 나가거라. 그러니 그 용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만 해도 용도가 참 많은데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숫자대로, 숫자가 만이면 만대로 부처가 계시고 손도 천이요, 눈도 천이라고 한 그 말이, 그 천이 천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꽉 찼다는 얘깁니다. 있는 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똑같은 손오공이 나갔어도, 용도에 따라서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고 하나는 사방으로 꽉 차서 어느 데에 아니 닿는 데가 없이 닿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손오공이 자기 재주만 믿고 어떤 때는 자꾸 일을 저지르는 수가 많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나중에는…, 그래도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았어. 그래서 나중에는, 부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 줄을 잡고 있던 걸 늦춰 놔, 가고 싶어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실감이 나게 걸었거든요. 그런데 늦춰 놨다가도 자기가 해 볼 거 다 해 보면 그것이 인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고선 아예 그냥 싫증이 난다고요. 그럴 때 줄을 딱 잡아 젖히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내가 이걸 꼭 해 봐야지.' 하고 하고 싶어 할 때에 이걸 탁 막으면 그건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세 살 먹은 어린애나 네 살 먹은 어린애나 또는 요렇게 두 살 먹은 어린애, 한 살 먹은 어린애를 만약에 잘못한다고, 울고 그런다고 자꾸 때려 보십시오. 그럼 더 웁니다. 그럼 저만 손해야. 어른만 손해야. 병나고 그러면 더 손해고. 그런데 만약에 어른들도 죄가 있다면 모르는 죄뿐이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바로 모르는 죄입니다. 허허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린애로 생각하고 '그 어린애를 때리면 뭘 하나.' 했습니다. 때리면 더 울기나 하지. 이걸 잘 깊이 새겨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모른다고 밉다고 그러고 아무 데서나 때리지 않았습니다. 때리지 않고 항상 자기가 어린애로 돼 있었을 때의 과거의 자기라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도량이 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뜻을 판단하고 그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은산철벽이다 뭐다 이러는 것도 그 뜻을 따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만날 물질로만, 색으로만 본다 한다면, 색으로 쫓아다니다가 볼일 못 보면 부처님의 뜻을 하나도 알지 못해요.

저 스님은 만날 한 말 되하고 한 말 되하고 한다 싶더라도, 천 번을 하더라도 잘 새겨들어 보십시오. 그런다면 진흙, 그 더러운 물에서 아주 예쁜 연꽃이라는 그 향기 내음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열쇠도 거기서 나오게 되고, 온 누리에 자기가, 참자기가 온 누리에 꽉 차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사리가 온 누리 우주에 꽉 찰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사리가 별다른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사리가 온 우주에 다 담겨 있는데, 어떤 사람은 스님이 열반하시면 사리 나올 때를 기다리고 그게 안 나오면 그냥 탈을 잡고 섭섭해하고 온통 무시하고, 이러한 문제들도 좀 음미해 볼 수 있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색만 보고 취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지금 당대의 요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모두가 색을 보고 취한다면 요 모습을 벗을 때 아픔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공부를 한 분들께서는 죽으려도 맘대로 죽을 수 있고 살려도 맘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지해서 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맘대로, 이 즉시에 태어난다 하면 이 즉시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한 분들께서는 죽으려도 맘대로 죽을 수 있고
살려도 맘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태자 될 아이가 없어서 어느 스님께 빌러 왔는데, 애기를 꼭 줘야만 하겠는데 그냥 줘서 될 일이 아니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 애기나 줘서는 인군이 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두 스님이 친구였는데 하나가 열반하셔서 그리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스님은 그대로 계시면서 그 스님이 바로 그리로 태어나셨어도 천백 화신입니다. 그리로 태어나셨어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더라는 얘깁니다. 그 뜻을 아셔야 합니다.

그 스님이 열반하셔서 그리로 태어나셨다는 거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야, 망건 쓰고 버선 신고 이거, 40년 살기가 참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치느라고 방편을 쓰신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얼마큼 고초가 많고 얼마큼 애로가 많은지를 여러분한테 알려 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방편을 쓰신 거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지마는 아는 사람은 그 말을 안 해도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좇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좇아가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 천백억화신이라니, 아니, 그 스님이 열로 되면 아니 되나, 만으로 되면 아니 되나? 이 공간에 꽉 찼는데 그 스님이 하나 빠졌다고 줄어들 수 있을까? 그러니 그 스님은 부처이신 거라. 산 부처라. 산 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닷물에서 물 한 그릇 뚝 떠서 줬단 말이야, 목마른 사람한테. 그 식이야. 그러면 그 바닷물이 줄었겠습니까, 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물 한 그릇 갖다가 들이부었는데도 아니, 거기 두드러집디까?

이렇게 자재력이 있고 이렇게 광대무변한 이 법을 여러분은 그 도리를 모르고 만화로만 생각하고 그 말귀만 따라서 좇아다니지, 색을 보고 쫓아다니지, 부처님이 돌을 던지고 "저거 뭐냐?" 하면 돌 굴러가는 걸 보고 그 돌을 쫓아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돌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면 돌인 줄 안다 이겁니다, 응?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종을 울리면 종 울리는 소리만 듣고 그걸 소리라고 하거든. 그걸 듣는 거라. 종 치는 거하고 소리하고 듣는 거야. 그 소리만 좇아다니다가 뭘 합니까? 그 뜻을 좇아야지.

우리가 지금 향 하나 꽂고 향 피우는 것도 바로 법문이요. 여러분은 말을 해야만이 법문으로 듣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하나 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말을 해도 함이 없고 이걸 들었어도 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든 이 자체의 근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말, 이것이 성품 따라서 어디서 나오는가?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뱃속도 알면…. 예를 들어서 자기 뱃속을 자기가 알아야 내 뱃속도 알 수 있고 또 역대의 부처님 뱃속도 알 수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 우주의 섭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맘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열쇠 아닌 열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가정에서 어떠한 불화가 일어나도, 내가 항상 당부하는 것은 아무리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 화목 화목, 죽을 때까지 화목, 화목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이, 세상에 해 보고 싶은 거 다 해 보고 나니까 모든 게 시들한 거라.

여기에 앉아 계신 어느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 재밌게 애들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여자를 얻어 가지고는 나가서 영 돌아본 체를 안 합니다. 야, 돈도 다 까불지 그냥, 아주 그냥 매기단을 칩니다. "얘야, 주인공에 맡겨 버리고 가만둬라. 저 하고 싶은 대로 이 줄을 늦춰 줘라, 늦춰 줘. 가는 대로 늦춰 줘라. 이 마음과 마음의 줄은 남편이라는 거하고 아내라는 거하고 줄이 있다. 이 줄을 그냥 늦춰 줘라. 그리고 자비로써 그냥 놔둬라. 여기다 맡기고 놔둬, 그냥." 그랬더니 한참 가다가, 이 줄은 쥐고 있으니까, 여기에 같이 가설이 돼 있으니까,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싫증이 났어, 그만. 허허, 고생만 되고.

야, 이거 그냥 버린 것도 아깝고 그냥 싫증이 나 버리니까 그 줄이 인제 슬슬 늦춰진단 말이야, 돌아오느라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로 줄이 느근하게 되니까 그냥 그것만, 느근한 대로만 잡아당기는 거라. 아, 그러니까 집으로 쏙 들어왔는데 바짝 쥐었단 말이야. 허허허. 그러니까 너무도 사랑하거든. 가서 경험을 하고 보니까 "야, 세상에 손이 들이굽지 내굽지 않더라. 세상에 다니면서 봐도 너 같은 아내가 없고, 너같이 예쁜 아내가 없고, 마음씨 그렇게 착한 아내가 없더라." 이러고서는 그냥, 그냥 위에다 놓는 거라, 응? 그러니 전자의 애정이, 없던 애정도 솟아 나오는 거라.

이것이 바로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이 주인공에 다, 주인공 줄에다가 모든 것을 놓게 되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참 착해져. 그리고 사랑을 받게 돼. 아무리 아들이 나쁘고 도둑질을 하고 그래도 전자의 인연줄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그 인연줄을 녹여 주기 위해서는, 그저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라. 여기 줄만 쥐고선 그냥 다 놔두면, 그렇게 믿고 놔두면 그냥 저절로 녹아 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야. 줄을 쥐고선 그걸 붙들고 바들바들 뛰니까, 이게 가는 거 그냥 당기고 당기고 하니까 가 보질 못하는 거야. 가서 그냥, 이것을 좀 느긋하게 두면 그냥 갔다가 한번 휘 돌아서 '아, 이런 게 이런 거로구나.' 그러고는 다시는 안 갈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 보고 싶은데 보질 못하게 딱 쥐고서는 늘어지니까 그냥 신경질을 내고 온통 야단이 나는 거죠.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탁 던져요, 응? (중략)

끝으로 한마디 당부 말씀 해 드릴 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삼독의 욕심으로, 또는 욕심으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욕심을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억겁을 거쳐 오면서 살아나오던 그 습이 있습니다. 뱀의 모습이든지 곰의 모습이든지 원숭이의 모습이든지 고양이의 모습이든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거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잠재해 있던 그 습이 공부를 하려면 그냥 쏟아집니다. 꿈에 나오는 한정 없이 쏟아지는 그 모습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인간이 되기까지 거쳐 나올 때에 살던 그 습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딴 남이라고 생각하고 '꿈에 이런 걸 봤으니 어이구, 내가 언짢지.' 왜 언짢습니까? 예?

우리한테 많은 재산도, 물건 이것도 본래 무면목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깨끗하게 다듬고 분 바르고 이렇게 했어도 이것은 가짜야.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이건 가짜다 이거야. 그러니 자기라고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나 자기, 가(假)자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있으니 가자기가 모든 거를, 부처님의 뜻을 잡고서 모든 거를 놔라 이거야. 놓되, 여기서는 분명히 놓는다고 하고 가서는, 집에 가선 악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러니 어떡합니까? 송구스럽단 말입니다. 내가 다 민망스러워.

그러니 여러분이 겁을 거쳐 오면서 살던 그 습에 의해서 속지 마시고, 환상을 보고 속지 마시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속지 마시고, 꿈이 나빠서 안 되느니 되느니 이렇게 속지 마시고, 또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어떠한 문제든지 조용히 좋은 말로, 하다가도 안 되면 딱 멈추고, 말하지 말고 여기다가 맡겨 놓는 그러한 사람이 되신다면 큰소리가 영 없고 화목이 깃들고 복이 들어오고 공덕이 될 것입니다. (중략)

편안하게들 사십시오.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한 생 이렇게 알뜰하게 관하고 정진하고 살아서, 세세생생을 우리가 보람 있게 참, 부처님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면서도 그 모습들이 다 나 아님이 없이 될 수 있다면, 당당하게 내가 지금 태어나려면 태어나고 죽으려면 죽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을 가질 때 그 보람이란 정말이지 눈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걸로써 끝을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6년 9월 4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